

產學協同체제 再定立을 위한 세미나

鄭 宇 鉉
(高麗大 教育學科)

근래에 大學教育의 改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產業社會가 요청하는 人材의 養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대학은 독자적인 教育活動에서 탈피하여 외부의 環境 즉, 교육에 관련이 되는 모든 분야와의 有機的 協同을 이룩함으로써 教育任務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提言하고 있다.

사실, 產業體와의 協同的 方案은 專門家養成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오던 것이기도 하다. 醫學教育에 있어서의 인턴制 실시, 敎師教育에 있어서의 敎生實習, 實業教育에 있어서의 現場實習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大學教育의 여러 분야에서 畧意를 이루고 실천되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大學은 아직도 教育的 機能에 대하여 관계자끼리 異見을 가지고 있으며, 產業體 자체에서도 教育任務의 첨가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西歐의 대학이 近代의 性格을 갖기 시작할 때 표방하였던 理念은 獨逸의 觀念論에 입각한 學

問中心의 教育이었다. 대학은 眞理를 탐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學問을 위해 學問'을 하는 곳, 精神的인 貴族이 모인 곳, 그리고 상아탑으로 특징지어졌었다. 이러한 이념은 人間이 됨을 自覺하여야 한다는 實存哲學의 立場에 선 Jaspers나, 想像力에 투철하고 知的 통찰력을 가진 인재의 양성을 부르짖은 Whitehead 등에 의해서 더욱 굳어졌고, 대학이 敎養教育的 性格을 크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이 專門職教育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양성된 인체가 產業社會, 더 좁게는 技術社會의 각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貢獻하고 있으면서도 大學社會의 일반적 분위기는 대학의 職業的 關聯性 내지는 產業體와의 協同에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近代社會에 들어서면서 대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대학으로 하여금 여러 측면에서 자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우선 成就的身分社會가 됨으로 해서 學歷認定의 요청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그리고 대학은 양적 팽창을 책임질 質的 向上方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 이 글은 본 협의회 주최로 1986년 9월 11일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있었던 "大學에서의 產學協同체제 再定立을 위한 방향 탐색" 세미나의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되었다.

또한, 제분야에서 技術의 發達이 극대화되고, 分業이 추진됨에 따라 보다 실무에 능한 專門人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가 대학에 하나의 압력으로 가중되게 되었다.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質的 向上的 要望, 그리고 산업사회로부터의 良質人材의 요청은 필연적으로 大學教育方法에의 再考를 바라게 되었고, 하나의 方案으로서 실천성 있는 產學協同教育을 再考하고 재정립할 시점에 왔다고 보겠다. 이러한 뜻에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주관한 이번 “大學에서의 產學協同體制 再定立을 위한 方向探索” 세미나는 시기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

2. 세미나의 진행

세미나는 1명의 基調講演과 4명의 主題發表, 그리고 청중과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基調講演은 蔚山大學校의 李 寬 總長이 맡았는데 그는 장기간에 걸친 工科系 大學教育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한국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產學協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主題는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는데

1부는 大學教育과 產學協同, 그리고 2부는 研究와 產學協同에 대한 것이었다.

主題發表에 있어서도 大學과 產業體의 의견을 골고루 얻으려고 각각 大學敎授 1명과 產業體 人士 1명씩이 초청되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학협동교육에 대한 대학측의 의견과 산업체측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었다.

발표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基調講演에 있어서는 우선 產學協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교육을 위한 산학협동과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제의하였다. 특히 現況과 問題點의 부각에 있어서는 외국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대비시킴으로써 상황의 파악을 쉽게 하여 주었다.

둘째, 主題 1은 教育活動을 위한 산학협동의 측면에서 대학측의 李茂根 敎授가 발표하였다. 李敎授는 발표를 통해, ① 產學協同의 定義와 範圍, ② 대학에서의 산학협동의 전개 방안, ③ 대학에서의 산학협동교육 성공 요청, ④ 산학협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산학협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항목화하여 지적하여 줌으로써 현실이

▼ 실천성 있는 產學協同教育은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요청되고 있다



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

세째, 主題Ⅱ는 산학협동에 대한 현장의 기대라는 내용으로 韓國經營者總協會의 상임 부회장인 尹能善 선생이 발표하였다. 尹先生은 산학협동이 훌륭한 人材養成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전제하고 企業의 입장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산학협동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특히 문제점 지적에 있어서는 그 특징적인 실태를 항목화하여 지적하고 있는데 ① 대학정원과 취업의 함수관계, ② 대학생의 기업관과 교육의 방향 모색, ③ 교육내용의 개선점, ④ 현장실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⑤ 개방대학의 문제점, ⑥ 경영자의 재교육과 산학협동의 임무, ⑦ 공동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네째, 主題Ⅲ은 “研究活動強化를 위한 산학협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학측의 金天旭 教授가 발표하였다.

그는 외국에서의 자동차 공업 발달과 이에 대한 대학의 협조 내지는 참여의 實態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제는 산업체의 개발을 위해서는 研究가 그 中心이 되어야 하겠고 研究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동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 산업의 특징을 發達史的으로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체가 보다 더 개발을 하려면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참여를 통한 연구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산학협동을 원만히 이룩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主題Ⅳ는 “産業體의 研究技術開發을 위한 大學의 參與”라는 제목으로 산업체 운영자인 金採謙 社長(쌍룡양회)이 발표하였다.

金社長은 최근까지의 한국 경제의 발전은 후발성적 적용에 있어 왔으나 이러한 과정의 적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하고 이제부터의 한국 기업의 성패는 자체 연구를 통한 技術向上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研究를 위한 산학협동은 학계에서의 요구만이 아니라 企業體 自體에서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한국의 技術開發 現況을 企業運營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

소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산학협동연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産學協同研究의 活性化方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인사들은 專門大學의 책임자와 교수, 一般大學의 관심있는 教授들, 그리고 산업체 관계 인사들이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의 自由討論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産學協同教育의 重要性을 인정하고, 문제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향 모색이 미약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大學에서는 專攻의 특성에 따라 산학협동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이고 제도적인 것보다는 非公式的인 수준에서 시작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3.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것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제시된 內容과 토의된 의견을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産學協同이란 ‘學界와 産業界가 教育과 研究에서 相互協力을 하는 教育方案’으로서, 學界의 입장에서는 科學技術教育과 研究活動을 촉진하고, 동시에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실무에 밝은 專門人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생산과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동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산학협동은 교육을 위한 것과 연구를 위한 것의 두 가지로 대분할 수 있다.

둘째,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산학협동교육은 필요한 교육 방안의 하나이며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더우기 이러한 必要性의 인식은 學界뿐만 아니라 産業界에서도 同調하고 있다.

세째, 산학협동은 대학 자체에서는 傳統的인 敎育觀, 그리고 산업체에 있어서는 운영목적의 차이로 인해 의견의 합일이 어렵고, 그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대학에 있어서는 먼저 大學教育에 대한 目標가 세워져야 하겠고 그 목표에 따라 문호를 개방토록 하여야 하며, 산업체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째, 대학에 있어서 산학협동이런 기업체에



▲ 산학협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률적 제도화보다는 자발적 실천에 의함이 바람직하다

대한 즉각적인 活用을 전제로 하는 데서 效用性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에서 즉각적인 效用이 필요한 専攻과 필요치 않은 전공이 있다. 따라서 산학협동의 실천을 위해서는 特性에 따른 教育目標의 세부적 경립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산업체는 구조상으로 볼 때 自力化의 시점에 왔고 自體研究를 통한 개발이 없이는 신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과 산업체가 협동하여 연구 추진하여야 한다. 즉, R & D의 실천을 보다 效率化시켜야 한다.

여섯째, 산학협동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具體的인 方案의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바로 지금이 적기로 보여진다.

일곱째, 産學協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一律的인 制度化보다는 自發的 實踐에 의함이 바람직하다. 즉, 形式을 우선하기보다는 實質的 內容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추진시켜야 한다.

여덟째, 산학협동은 大學과 企業體 및 政府의 共同 관심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먼저 政府

에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行·財政的인 支援를 하여야 한다.

아홉째, 産學協同教育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諸般規定과 法的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규정이나 법적 조치는 自發的 推進을 돕기 위한 細部的 內容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상해자를 위한 보호 및 사후처리 문제, 産學協同에 관여하는 要員의 新원 문제, 共同任用의 문제, 協議體나 委員會組織의 문제, 協同教育에의 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具體的으로 成文化되어야 한다.

열째, 우리나라에서의 産學協同 推進을 위해서는 산업체와 연관이 깊은 專門大學 또는 實科系大學부터 참여토록 유도하되, 이들 先導的 大學을 위해 特別支援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열한째, 學界와 産業體가 共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해 政府當局의 先導的 추진이 요망된다.

열두째, 산학협동의 效果的인 推進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研究를 통해 細部的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